

한영교회 온 가족 예배

12/18(월)~23(토)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우리 가정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은혜만이 소망이다

[욥기 40:1-24]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40:1-24]의 말씀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무능을 깨닫고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세상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의로우시므로 모든 판단이 정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에 항의해서도, 그것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행위가 절대적으로 정의로움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자신의 불의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비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증거를 열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만일 교만한 자들을 멸망시킬 수 있으면 그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음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가 전적으로 불가능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사하여 거룩해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3.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자신이 자연만물 속에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열거하시며 욥의 무능을 증명하신 것은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이는 욥이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겸손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를 재앙에서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전적으로 무능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적 은혜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의 역사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 나눔**
1.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2.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묵상해 봅시다.

기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만을 바라보는 한날 되게 하소서.

리워야단을 보라

[욥기 41:1-34]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41:1-34]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피조물 중 으뜸이 사람이 아니라 베हे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의 동물 리워야단을 등장시켜 하나님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1. 리워야단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욥의 입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신다. 리워야단 앞에서 욥은 속수무책의 존재가 된다. 그런 리워야단이 존재하는데도 그간 욥은 잘도 살았다. 그 리워야단을 잠시 기존의 한도를 넘어서 활동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욥은 몸소 경험했다. 만약 그런 일이 상시적으로 벌어졌다면, 욥이 갖고 있던 정의 관념,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선악의 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욥은 이미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래서 살아왔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다움은 그분의 자유에 있기 때문이다. 욥은 하나님의 자유를 맘대로 재단할 자격이 없다.

2. 혼돈의 존재가 창조의 모순은 아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면 베हे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혼돈의 존재는 창조의 질서와 모순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창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뿐이다. 악인들의 존재가 하나님과 창조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악인, 혹은 혼돈의 세력을 막을 수 있다. 그들의 존재가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니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고난 없는 거룩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죽음 없는 생명은 없다. 흑암 없는 빛은 없다.

3.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신비를 믿으라 인간의 기준과 필요를 뛰어넘어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창조의 권능과 지혜를 믿어야 한다. 욥은 제한된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의심했다. 그는 리워야단을 포획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은 저 악의 세력을 당장에 궤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그 혼돈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리워야단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분명히 현상시키도록 믿음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 그것이 성화다.

나눔 1. 이길 수 없는 악한 힘 앞에서 무기력과 상실과 좌절, 혹은 두려움을 경험했던 일에 대해 나눠봅시다.
2. 잔존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기도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제는 제 눈으로 봅니다

[욥기 42:1-17]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42:1-17]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끔찍한 재앙들, 그리고 친구들과 욥 사이의 긴 논쟁과 마침내 등장하신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과 말들의 향연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욥의 마지막 발언은 거의 모든 구절이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어렵다. 어쩌면 욥기를 읽는 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욥기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닐까? 각자가 자신만의 욥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1. 욥이 변했다 욥은 첫 번째 대답에서는 하나님과 더는 논쟁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지만, 두 번째 대답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다. 그는 이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벗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과 혼돈이 존재하는 세상의 삶의 조건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운 질서가 형성되어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회개하고, 깨달음을 인정하고, 위로를 얻고 있다.

2. 욥이 옳았다 하나님은 욥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분노하신다. 그것은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했지만,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만 말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완벽한 정통교리였지만, 그는 친구 욥에게 위로자가 되기는커녕 심판자가 되었다. 반면에 욥은 반항적이고 불경한 말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향했다.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해결책도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믿었다.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

3. 욥이 회복되었다 욥을 중보자로 회복하시고, 소유를 회복하시고 인간관계를 회복하셨다. 욥은 단지 회복만 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다. 법칙과 목적에 좌우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고 용서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어찌 잃어버린 자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식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또한 보상이다. 한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행복뿐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제한된 보상 가운데 최고의 보상을 욥에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미안하셨을 것이다. 사과와 위로 한마디 없지만, 이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한다.

나눔 1.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변화되었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2. 결국 보상을 받으며 욥기가 마무리 되듯, 일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상처와 다 이해되지 않는 답답함으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기도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인생의 빛나는 보물은 동역이다

[빌립보서 1:1-11]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1-11]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참다운 동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1. 그치지 않는 감사와 기쁨 바울은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에 연연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선교 초기부터 변함없이 동역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동역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뤄 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동역이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참된 동역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상대의 실수나 미숙함도 이해하며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역해 나아간다면 그분이 친히 이뤄 가실 것입니다. 동역하면서 어느 순간 상대에게 실망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3. 멈추지 않는 성장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성장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 가운데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기 원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봅시다. 영적 성장이 멈춰 과거에 머무르거나 현재에 안주하고 있다면 곧 영적 퇴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눔

1. 우리는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동역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2. 풍성한 사랑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기도 아름다운 동역으로 빛나는 보물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성장하게 하소서.

멈추어 생각하라

[빌립보서 1:12-2:4]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12-2:4]의 말씀입니다.

힘 없이 질주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주는 의미 있는 조언에 귀 기울여 봅시다.

1. 우리가 사는 이유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한 듯합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육신을 떠나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요, 영광이며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거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그들의 믿음이 진보하도록 돕길 바랐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영혼들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2.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함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활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플리투에스세는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과 특권을 누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의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선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 땅의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3. 고난이라는 영광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고난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과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뿐 아니라 이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제도 바울은 기뻐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싸워나가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다 겪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나눔 1.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2.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내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복음을 외는 삶을 살며 사람을 섬기고,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빌립보서 2:5-30]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5-30]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중 하나는 동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목숨 걸고 바울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1. 곁을 지켜주는 동역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가능한 한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전해 들음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위해 이런 일을 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일을 찾아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한결같이 바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동역은 함께 머물러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힘들 때 그의 옆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동역입니다. 지금 내가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의 곁에 머물며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2.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 진정한 동역은 어떤 사람의 곁을 지켜줄 뿐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지금까지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디모데는 바울의 뜻대로 그의 소식을 전하러 빌립보로 갈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로 감옥에 있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동역자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 물질, 몸으로 섬길 때 서로에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 동역하는 태도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으로는 디모데 외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에게 헌금을 전하고, 바울의 곁에 머물면서 돕도록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돕다가 병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자신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높이면서, 수고하고 돌아가는 그를, 빌립보 교회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동역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나눔**
1. 지금 나와 함께 하는 동역자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보세요.
 2. 교회 안에서 나는 곁에 있어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자인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 바울을 돕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동역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여 주며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